

#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64 Tel. 02. 765. 3011~3



# 12

2015 | Vol. 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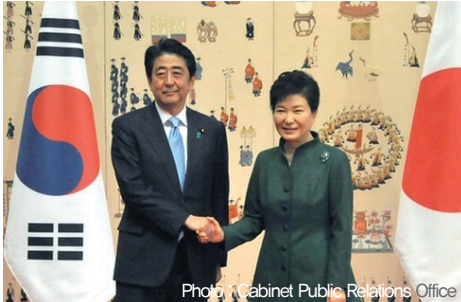
요코하마의 야경

Photo: Kazuyuki Ishikawa



## 일한 정상회담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45분, 일한중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일한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또한 정상회담에서는 모두에 약 1시간 정도 단독회담을 실시한 후, 약 45분간 확대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1. 단독회담** (1) 두 정상과 함께, 일본측에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내각관방부장관,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

안전보장국장, 한국측에서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참석했다.

(2) 두 정상은 일한간의 여러 현안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했으며, 아베 총리는 여러 현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밝혔고, 한국측의 대응을 요구했다.

(3)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한관계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양국이 미래지향의 관계 구축을 위해, 장래 세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본건에 대

한 대응은 국장협의 등의 자리에서 이미 끈기 있게 협의해 오고 있지만, 두 정상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하여, 올해가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기념할 만한 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조기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다.

**2. 확대정상회담** (1) 두 정상은 일한간에 의사 소통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조금씩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안전 보장, 인적 교류,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한 간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 현상을 제기했다.

(2) 북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하고,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일한 및 일한미의 안전보장분야에서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했다. 나아가,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 일한 간에 협력해 가기로 했다.

(3)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의 경제 관계 진전과 일한중 FTA, RCEP의 중요성, TPP의 의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일한 외교장관회담

11월 1일(오전 10시 35분 무렵부터 약 50분간(현지 시간), 일한중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일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배석자 : 일본측에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아시아대양주국장 외, 한국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 외).



루어졌다.

2. 모두에 윤병세 장관은 일한중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의사 소통을 통해 얻은 기시다 외무대신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 일한중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만에 개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한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 기시다 외무대신 취임 이래, 9번째 일한 외교장관회담으로 9월의 뉴욕 회담에 이어 일한 관계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

에 대해 기시다 외무대신은, 윤 장관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약 3년 반 만의 일한중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두 장관은 11월 2일에 개최될 일한 정상회담의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동시에, 정상회담이 앞으로의 일한 관계 진전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회담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준비해가기로 했다.

3. 또한 두 장관은 일한 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기시다 외무대신은 '구민간인 징용자'를 둘러싼 재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산케이신문 전서울지국장 기소문제, 다케시마 문제를 제기했다. 윤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다. 두 장관은 일한 간 현안에 대해 국장국 협의 등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협의해 가기로 했다.

4. 나아가 두 장관은 11월 1일 오후에 개최될 일한중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일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 제6차 일한중 정상회의

11월 1일(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에서 제6차 일한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참석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박근혜 대통령(의장),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 또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 윤병세 외교부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이 배석했다). 또한 회의 종료 후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및 '환경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경제·무역에 관한 공동성명' '무역 원활화와 관련된 세관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농업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및 '교육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1. 일한중 협력** (1) 3국 정상은, 3년 반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일한중 협력프로세스가 완전히 회복된 점, 또한 일한중 정상회의의 정기적인 개최를 재확인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착실한 진전을 환영했다. 나아가 일한중 3국 협력사무국(TCS)의 협력 추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개별 협력 안건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다. (2) 구체적으로 3국 정상은 방재, 환경, 청소년 교류, 경제 등에서 더욱 협력해 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직전에 도쿄에서 개최된 일한중 방재담당장관급회의의 발전적인 성과를 언급하면서, 내년 일한중 청소년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할 의향을 밝혔다. 일한중 FTA협상,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대해서는 동아시아경제통합의 중요한 축으로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에서 협정의 조기 타결을 목표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상해 가기로 했다.

### 2. 지역·국제 정세

**(1) 동북아 정세** 3국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한 반대를 재확인하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나 6자 회담 공동성명 아래 국제적인 의무와 공약이 성실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모든 행동에 반대한다는 점을 표명했다. 또한, 의미 있는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한 공동 대응을 계속해 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중국과 한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2) 동아시아 지역 협력** 3국 정상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관한 일한중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ASEAN 공동체 설립 등도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대해, 지역의

프리미엄·포럼으로서 정치, 안보에 관한 논의 강화와 기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 국제 경제** 3국 정상은 세계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잠재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 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시에 APEC정상회의, G20정상회의 등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강한 경제' '육아 지원'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으로 구성된 새로운 '3개의 화살'을 소개하고, 지역과 세계의 경제 성장에 계속 공헌해가기로 했다.

**(4) 지구적 과제** 3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아젠더 채택을 환영하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의 법적 구속력이 있고 야심적인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합의 채택을 위해 협력해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해,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틀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감염증 대책이나 유니버설·헬스·커버리지(UHC)의 추진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의 대응이나 '세계 지진 해일의 날'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 테러대책·중동 아프리카**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테러대책·중동 아프리카에 대해, ISIL은 국제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중대한 위협이며 각국이 연계하는 다면적, 장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일한중 테러대책협의·일한중 아프리카 정책협의 재개를 환영하는 동시에, 일한중 중동정책협의의 실시 결정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3. 기타** 회의에서 역사 문제도 언급되었는데, 아베 총리는 올해가 전후 70년이며 금년 8월에 담화를 발표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겠다며 역대 내각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뒤, 전후 70년 간의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공헌해갈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역사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해 협력할 필요도 있다. 특정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자세는 생산적이지 않으며, 일한 및 일중 간에는 협력과 발전의 역사가 있다. 일한중 협력의 전향적인 역사를 더욱 이어가자고 한다고 말했다.

**4. 차기 일한중 정상회의** 3국 정상은 차기 일한중 정상회의를, 내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회의의 논의에 입각하여, 더욱 전향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일본에서 맞이할 날을 기대한다고 했다.

# 제18차 ASEAN+3(일한중) 정상회의

11월 21일(토) 오후 4시 55분부터 오후 6시 5분까지(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18차 ASEAN+3(일한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했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의장 : 나지브 말레이시아 총리).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제2차 동아시아비전 그룹(EAVG II) 후속조치 최종보고서' 등이 채택되었다.

## 1. 정상회의 모두(일한중 정상회의)

아베 총리는 일전에 일한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의 긴밀한 과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소개하고, 일한중 협력프로세스의 정상화가 ASEAN+3 협력의 가일층의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정상으로부터도 일한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대부분의 ASEAN 각국 정상은 일한중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앞으로 3국 협력의 진전을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 2. ASEAN+3 협력 리뷰와 앞으로의 방향성

(1) **총론**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민간전문가인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 후속조치 최종보고서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일본도 특히 고등교육과 공중위생분야에서 협력을 돈독히 해 갈 것이며, 내년 이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국 정상은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후속조치 최종보고서를 환영하는 동시에, 각국의 중점분야를 소개했다.

(2) **경제** 아베 총리는 아시아가 21세기에도 세계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아시아발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겠다.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인재와 인프라이며, 일본은 앞으로 3년동안 4만명의 아시아 청년의 기능 향상과 지식 습득을 지원해 가고자 하며, 안전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고부가 인프라 정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고 오퍼레이션에도 참여하겠다. 엔(円) 차관 절차의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반 단축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 급후 높아질 리스크를 감안한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역내에서도 ASEAN+3 거시경제감시기구(AMRO)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금융안전망 강화에 기여해 가기로 했다. 나아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도 높은 수준의 합의를 하고 싶다, 조기협상완료를 위해 각국이 긴밀히 협력해가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문제를 경제성장이나 빈곤퇴치와 양립하는 형태로 해결하는 열쇠가 이노베이션이며, 일본은 이를 촉진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SEAN측은 고부가 인프라파트너십에 대해 언급했으며, 많은 정상들이 금융안전망 강화와 RCEP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3) **식량안전보장** 아베 총리는 올해 일본이 필리핀과 캄보디아에서 실시한 쌀 지원을 소개한 다음, 푸드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 제휴 협력을 더욱 확대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원전관련 수입규제 완화와 철폐를 위해,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속한 규제철폐를 요구했다.

(4) **사람과 사람의 연결성** 아베 총리는 역내 학생교류 촉진과 아시아의 미래를 짊어질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의 일본 초청,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는 관광협력에 대해 2016년 ASEAN+3 관광장관회의에서 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것이 관광협력촉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3. 지역·국제 정세

(1) **북한** 아베 총리는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 행동을 자제하고, 유엔안보리결의 등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납치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한 각국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2) **해양안전보장**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에서 대규모의 급속한 매립과 거점 구축, 그 군사 목적의 이용 등 현 상황을 변경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아베 총리는 개방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며, 또한 '바다의 법 지배 3원칙'(①국가는 국제법에 의거한 주장을 해야하며, ②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힘이나 위압을 가하지 않는다, ③분쟁은 철저히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러 국가가 해양 협력의 중요성,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 항해와 비행의 자유, 행동규범(COC) 작성의 중요성 등을 지적했다

## 4. 기타

마지막으로 아베 총리는 내년에 일본이 일한중의 '조정국'으로서 의장국 라오스와 협력하며, ASEAN+3 강화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회의 종료 후, ASEAN+3 정상과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합동 콘서트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합동 콘서트가 12월 22일(화)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일본 최고의 역사와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정상급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합동 콘서트를 통해 양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환희와 인류애를 노래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정명훈 씨의 지휘로 서울시향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연주하며, 100여 명의 합창단원과 양국의 정상급 성악가들이 솔리스트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자,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명예지휘자를 맡고 있는 정명훈 씨는 예술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우호 증진을 위해 오래 전부터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고 한다.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는 베토벤 교향곡 '합창'의 가사가 전해주듯이, 이번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합동 콘서트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더 나아가 아시아와 전세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한다. 12월 26일(토)에는 도쿄의 Bunkamura 오차드홀에서도 공연된다.

## 일본문화원 리포트 ②

#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한 라멘' 한 그릇

일본문화원 리포터 김지영



따끈한 돈코츠 라멘(豚骨ラーメン). 오랜 시간 푹 고아 만든 진한 사골육수를 한 모금 삼키자 라멘 그릇을 잡은 손 끝부터 위장까지 순식간에 따뜻해졌다. 직접 만든 면을 비롯해 두툽한 차슈(チャーシュー)와 간이 밴 달걀(味付きたまご), 느끼함을 잡아주는 파를 토핑으로 올려 완성한 '부탄쥬(豚人)'의 돈코츠 라멘은 행사장을 찾은 손님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쌀쌀한 요즘 날씨에 먹으니 딱 이었다. 이 맛있는 라멘 한 그릇 때문일까? 행사장 분위기는 화기애애 하고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 보였다.

지난 11월 19일(목),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명동 롯데호텔에서 '일본라멘행사(Why We Love Ramen: A Generation of Shared Taste between Korean & Japanese Food Culture)'가 개최되었다.

Asia Society Korea Center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라멘과 일본의 음식문화에 대한 강의 및 라멘 시식이 준비되었다. 벳쇼 코로(別所浩郎) 주한일본대사와 마크 리퍼트(Mark W. Lippert) 주한미국대사 및 한국 대학생과 일본문화원 리포터를 포함해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복의 라멘을 선보인 부탄쥬의 청년 창업자 나카오 요스케(中尾良介) 씨는 "맛있다, 재미있다, 즐겁다는 세계인의 공통된 감정을 일본라멘을 통해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며, "맛있는 라멘을 먹고 모두가 행복해 진다면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유쾌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일본음식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건 아닐까? 일본인에게 있어 소울푸드와 다름 없는 라멘. 따뜻하고 맛있는 라멘 한 그릇 덕분에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행사였다.



일시 12월 22일(화) 20:00~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02-541-3183





2015년 실시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사업 기타큐슈시·인천광역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가 기타큐슈시 기타하시시장을 예방

## 인천광역시와 기타큐슈시 자매도시교류

기타큐슈시(北九州市)는 일본 규슈의 최북단에 위치한 인구 약 96만 명, 면적 약 486.8평방 km의 도시로서, 1963년 모지(門司)·고쿠라(小倉)·도바타(戸畑)·야하타(八幡)·와카마쓰(若松)의 5개 시가 대등하게 합병하며 탄생했다. 1901년 아시아 최초의 근대제철소가 개업한 이래, 이 지역에는 철강, 화학, 금속, 요업 등 소재형 산업이 집적된 일본 4대 공업지대의 하나로써 일본의 근대화를 지지해 왔다.

산업 발전의 한편으로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고, 공업지대 중심부의 초등학교가 매연, 분진 등으로 폐교되고, 항만이 공업 폐수와 생활 폐수로 생물이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라 불릴 정도로 환경 오염이 진행되었지만,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하나가 되어 장시간에 걸쳐 공해문제에 대처하며 극복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환경 기술과 인재를 활용한 선구적인 대응은 일본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되어, 2011년 6월 기타큐슈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환경'과 '경제'가 양립하는 '녹색 성장 도시'로 아시아에서 처음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자동차 관련산업 등의 입지(立地)가 이어지고, 산업용 로봇 등의 생산도 활발하여,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해극복 과정에서 축적된 환경관련기술을 해외로 발신함으로써, 아시아 신흥국의 기업과 인재의 집적(集積)을 지향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와 자매도시 체결

인천광역시는 산업과 항만 등 기타큐슈시와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1988년 이루어진 '일한친선교류 페스티벌'과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기타큐슈시와 인천광역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1988년 12월 20일 자매도시를 체결했다.

#### 문의처

기타큐슈시 총무기획국 국제부 아시아교류과

TEL +81-93-582-2162 FAX +81-93-582-2176

HP <http://www.city.kitakyushu.lg.jp/korean/index.html>



## 인천광역시와의 주요 교류

인천광역시와는 자매도시 체결 이후 다양하게 교류해 왔다. 2002년부터 매년 상호 청소년교류단을 파견하거나 받아들이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일한 교류에 관심을 갖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2015년도에는 8월 1일부터 4일에 걸쳐 인천광역시 중고교생이 기타큐슈시를 방문하여 중고교생이 있는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축제 관람과 시내 기업 시찰을 통해 청소년간 우정을 키웠다. 또한 두 시의 행정, 의회 상호교류를 짝수 해인 8월에는 기타큐슈시가 인천광역시를 ‘왓쇼이 백만 여름 축제’에 초대하고, 홀수 해인 10월에는 인천광역시가 기타큐슈시를 ‘인천 시민의 날’에 초대하고 있다. 2015년 10월 15일 ‘인천 시민의 날’ 기념식에는 기타큐슈 부시장 및 시의회 부의장 이하 방문단이 참석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기타큐슈시와 인천광역시가 함께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회원도시가 되어 경제교류를 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는 기타큐슈시와 시모노세키시가 자매우호도시인 인천광역시, 다롄시(大連市), 부산광역시, 칭다오시(青島市)가 설립한 6개 도시 회의에 후쿠오카시(福岡市), 톈진시(天津市), 옌타이시(煙台市), 울산광역시가 들어오면서 2004년 11월 설립되었다. 경제활동 추진을 위해 ‘국제비즈니스, 환경, 관광, 물류’의 4개의 부회를 설치하고, 2014년부터 구마모토시(熊本市)가 새롭게 참여하여, 비즈니스 찬스의 확대와 상호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 직원의 상호파견연수로서 행정인사교류를 1996년부터 지속하고 있다. 기타큐슈시립대학과 인천대학교의 교환 유학, 두 시 프로축구팀의 국제친선경기 등도 갖고 있다. 또한 기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생명의 여행 박물관, いのちのたび博物館)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타큐슈시의 우호도시인 중국 다롄시의 뤄순박물관 등 3개 박물관이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3관 순회기획전과 교류전람회를 개최하는 외에, 기타큐슈시 시민 마라톤에 인천 시민이 참가하는 등 교육·문화·스포츠 교류도 매우 활발하다.

## 맺음말

한국은 기타큐슈시와 가장 가까운 외국이자,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나라다. 인적 교류를 돈독히 하는 도시간 교류는 상호 이해와 친선을 낳았고, 양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기타큐슈시와 인천광역시는 1988년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한 이후, 27년간 다방면에 걸쳐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왔다. 인천광역시는 아시아 유일의 허브 공항을 갖고 있으며, 국제기관 유치와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세계적 규모의 행사 유치에 적극적이며, 아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세계의 환경수도’를 목표하는 기타큐슈시의 귀중한 파트너 도시다. 앞으로도 시민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며 두 도시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하여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쿠라성(小倉城)



히라오다이(平尾台)

일본 유수의 카르스트 대지로서 천연기념물, 국정공원, 현립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5년 실시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사업 기타큐슈시·인천광역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와 호스트 패밀리 대면식



기타큐슈시 중심부 항공사진

(협력: CLAIR, Seoul)





## 요코하마시 만날 때마다 새롭다

*Inspire Your Soul*

Find Your YOKOHAMA



横浜市長 林 文子

한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코하마시장 하야시 후미코(林文子)입니다.

요코하마(横浜)는 1859년 개항 이래, 세계로 향한 일본의 관문으로서 발전했으며, 해외와의 무역과 인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물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풍토를 육성해 왔습니다. 현재 요코하마는 세계 18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등을 체결하고,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연대를 돈독히 하며, 일본을 견인하는 대도시로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일본, 한국, 중국 3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일본 개최도시로서, 요코하마는 광주광역시, 취안저우시(泉州市)와 함께 다양한 문화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요코하마 댄스컬렉션에 한국 아티스트가 참가하는 등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불과 2시간 거리로, 일본의 모든 주요 도시와 신칸센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본관광거점으로서 최적입니다. 약 300미터 높이를 자랑하는 요코하마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한 고층빌딩 숲에서는 아름답게 펼쳐진 바다와 항구, 반짝이는 야경 그리고 후지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 고유의 고건축과 사계절의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지정명승·일본정원 '산케이엔(三溪園)'이나, 넓은 부지에 아프리카의 사바나를 비롯하여, 세계 환경을 재현한 동물원 '즈라시아' 등 요코하마에는 국제도시로서의 전통과 함께, 선진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춤, 음악, 미술 등 세계 수준의 독창적인 문화 예술의 발신지로서 사람들의 활기와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방문자를 매료시키는 도시 요코하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당신만의 요코하마를 찾아보세요.



오른쪽 QR코드를 스마트 폰 등의 단말기로 읽어 들이면 요코하마의 관광지, 이벤트, 구르메 정보 등이 한국어로 표시됩니다!





## 바다와 만나다



매일, 세계 각국에서 화물선과 호화여객선이 오가고 있으며, 여객선 기항수는 12년 연속 일본 최고다. 또한 세계 트라이애슬론 대회도 열리고 있다. 이런 항구의 바로 옆에 요코하마의 활기가 있다. 요코하마의 바다는 사람들의 생활과 아주 자연스럽게 닿아 있다.

바닷가를 산책하는 사람, 느긋하게 쉬는 사람,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등. 요코하마의 바다는 모든 사람이 몸과 마음을 열어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 야경과 만나다



요코하마의 밤은 반짝이는 무수한 빛에 휩싸인다. 계절에 따라, 즐기는 방법에 따라, 그 빛은 표정을 바꾼다. 무수한 시간의 흐름이 도심의 깊이를 알려준다. 또한 LED 조명과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절약 기술과 아티스트의 창조성을 융합시킨, 새로운 야경의 창조를 시도하는 빛의 축제 '스마트 일루미네이션'은 장관이다.

## 아트와 만나다



회화, 조형, 음악, 춤. 요코하마는 도시 안에 예술이 녹아 있다. 창조적 활동과 공간이 사람들을 자극하여 새로운 창조를 낳고 있다. 언제

나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기질과 토양이 창조적인 요코하마의 문화를 만들고,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를 키어왔다. 세계 수준의 독창적인 문화예술의 발신지로서 요코하마는 사람들의 활기와 활력으로 넘쳐난다.

## 세계와 만나다



19세기 중반 요코하마 항구는 세계로 가는 일본의 관문으로 개항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의 문화가 들어오고 계승되어 왔다. 다양한 문화는 언제나 교차하며, 하나가 되어 독특한 정서를 만들고 있다.

## 일본과 만나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요코하마. 일본 문화도 확고히 보존되고 있다. 일본 건축과 아름다운 초목이나 꽃들이 사계절의 표정을 보여준다. 맛있는 술과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정.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일본의 기즈나(絆)가 요코하마에 있다.

## 역사와 만나다



150여년 전 개항한 이래, 요코하마의 거리를 지켜온 역사적 건조물.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외관은 소중히 계승되면서, 새로운 리노베이션을 거쳐 박물관과 상업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옛 것, 좋은 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요코하마의 풍토가 이것으로 상징되고 있다.

## 나만의 요코하마와 만나다

요코하마에 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친절함이다. 버스 안에서 어린 아이가 울어 어머니가 난처해 하자, 기사 아저씨가 차내 방송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상냥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서울 시청에서 요코하마 시청으로 파견 온 공병엽 씨)

요코하마에는 배를 타고 나가, 바다에서 보는 미나토미라이(みなとみらい) 지역의 랜드마크 타워를 비롯해 빨강 벽돌 창고, 야마시타 공원(山下公園) 등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의 야경이 유명하다. '블루 라이트 요코하마'라는 노래를 무심결에 흥얼거리게 된다. 사람에게 상냥하고 살기 쉬운 요코하마가 너무 좋다.

(인천 시청에서 요코하마 시청으로 파견 온 김경구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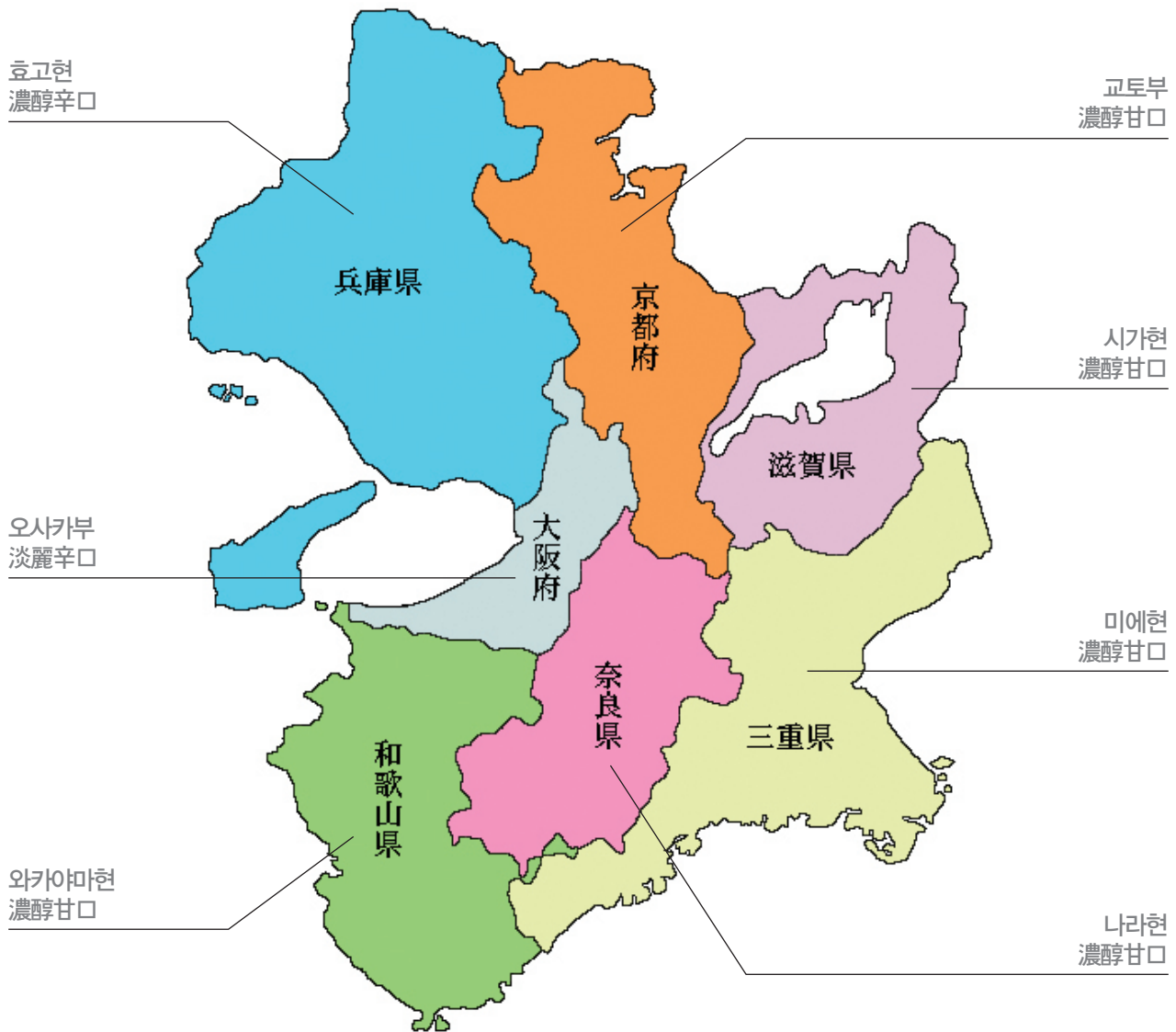


요코하마는 하네다 공항에서 약 30분, 일본의 주요 도시와 신칸센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본 관광 거점으로 최적이다!

(협력: CLAIR, Seoul)



## 일본 관서지방 사케의 특징



주)

노우준 아마쿠치(濃醇甘口)

진하면서 감칠 맛이 좋고, 단 맛.

노우준 가라쿠치(濃醇辛口)

진하면서 감칠 맛이 좋고, 드라이한 맛.

탄레이 가라쿠치(淡麗辛口)

맛이 깨끗하고 부드러우면서 드라이한 맛.

### 미에현

일본에서도 유수의 미식 문화를 자랑하며, 다양한 청주효모가 개발되고 있는 미에현(三重県)의 사케는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와 어울릴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사케가 제조되고 있다.

옷카이치(四日市), 나바리(名張), 마쓰자카(松坂) 등 약 37개의 양조장이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벼농사에 적합한 토지로서 야마다니시키(山田錦), 고타쿠만고쿠(五百万石), 이세니시키(伊勢錦) 등 많은 주조호적미(酒造好適米)가 재배되고 있다. 대부분 노우준 아마쿠치(濃醇甘口) 사케가 많이 제조되지만, 나바리 지역에서는 탄레이(淡麗)유형이 주류를 이룬다.

대표 브랜드 지쿤(而今), 자쿠(作), 기자에몬(義左衛門)



## 시가현

비와코(琵琶湖)가 유명한 시가현(滋賀県)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서 예전부터 유명한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다. 시가현산 쌀의 대부분은 이 산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지하수로 양조되기 때문에 깊고 부드러운 맛의 사케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시가현 곳곳에 43여 곳의 양조장이 분포되어 있으며, 주조호적미인 ‘다마사카에(玉栄)’이 외에 ‘니혼바레(日本晴)’의 생산량도 최대를 자랑한다. 주조호적미는 물론, 지역산 쌀에 의한 사케 제조도 활발하다.  
**대표 브랜드** 시치혼야리(七本槍), 후로센(不老泉), 하기노쓰루(萩乃鶴)

## 교토부

무로마치(室町) 시대에는 교토 시내에만 300여 곳의 양조장이 존재했지만, 현재 교토부(京都府)에는 총43개 양조장의 절반이 후시미(伏見)에 위치하며, 나머지는 거의 탄고(丹後)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의 사케는 맛이 부드럽고 식감이 좋다고 해서 ‘온나자케(女酒)’라 불린다. 후시미는 세심하고 부드러운 맛이지만, 탄고는 농순하며 존재감이 있다. 최근에는 독특한 향기가 특징인 교토부산 주조미인 이와이(祝)가 주목 받고 있다.  
**대표 브랜드** 에이쿤(英勲), 다마노히카리(玉乃光), 다마가와(玉川)

## 오사카부

에도(江戸) 중기 이전에는 이케다(池田), 사카이(堺) 지역에서 사케 제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요도가와(淀川) 유역의 이즈미(和泉) 지구를 중심으로 약 13개 양조장만이 남아있다. 오사카부(大阪府)에서 생산되는 사케는 매우 경쾌하면서도 깊은 맛이 난다.  
**대표 브랜드** 아키시카(秋鹿), 고슌(呉春)

## 효고현

효고현(兵庫県)은 아마다니시키를 비롯해 주조미의 최대 생산지일 뿐만 아니라, 일본 최대의 사케 생산지다. 또한, 나다(灘)를 중심으로 각지에 약 76개의 양조장이 분포하고 있다. ‘나다의 미야미즈(宮水)’는 적당한 염분과 갈슘

이 풍부하고 철분이 적으며, 사케의 풍미가 잘 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야미즈를 사용한 농순한 가라쿠치의 ‘나다의 오토코자케(男酒)’이 외에, 아마다니시키를 사용한 방순(芳醇, 향기롭고 맛이 좋음)한 사케가 만들어지고 있다.

**대표 브랜드** 고쓰즈미(小鼓), 다쓰리키(龍力), 오키하리마(奥播磨)

## 나라현

나라현(奈良県)은 오미와신사(大神神社) 및 최고 신전이 있는 가스가타이샤(春日大社) 등 고대부터 사케의 역사가 깊은 지역으로, 현재는 나라(奈良), 사쿠라이(桜井), 요시노(吉野)를 중심으로 약 36개의 양조장이 분포하고 있다. 목 넘김이 부드럽고 산뜻하며, 풍부한 감칠 맛을 내는 사케가 많이 생산된다.

**대표 브랜드** 가제노모리(風の森), 하루시카(春鹿), 하나토모에(花巴)

## 와카야마현

와카야마(和歌山), 가이난(海南) 주변 및 기노가와(紀川) 유역에 약 24개의 양조장이 분포하고 있다. 와카야마현에서 생산되는 사케 가운데 천황에게 현상되는 브랜드가 있으며, 숨은 명주를 탄생시키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온난한 기후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사케는, 감칠 맛이 좋은 농순(濃醇, 맛이 진하고 감칠 맛이 좋음)한 타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 브랜드** 구로우시(黒牛), 깃도(KID), 사이카(雑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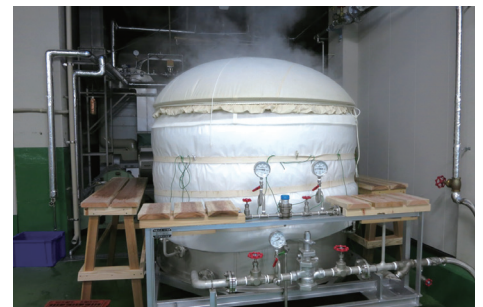
와카야마현 나테주조장(구로우시), 양조장 전경



주모실



증자 과정



증자(쌀을 찌는 과정)



누룩균 상포





## 재팬 푸드 페스티벌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으로 한국에 진출한 일본외식업체가 공동기획하고 주관 일본대사관과 일본정부관광국이 후원한 ‘재팬 푸드 페스티벌’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 강남에 위치한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호의 재팬 푸드 페스티벌 관계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시작으로, 앞으로 참여 업체를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 재팬 푸드 페스티벌은 어떤 행사인가.

강남에 점포를 둔 일본외식업체들이 함께 손 잡고, 동시 개최한 스탬프 이벤트다. 참가 업체는 카쓰야(かつや), 마루가메제면(丸亀製麺), 레타스(れたす), 와타미(和民, 이상 발기인), 갓텐스시(がっせん寿司), 모스버거(モスバーガー), 요멘야 고에몬(洋麺屋五右衛門)이다. 행사 내용은 스탬프 어플리케이션 회사와의 협력으로 재팬 푸드 페스티벌 기간 중에 방문한 사람에게 1점포당 1개의 스탬프를 찍어 주고, 3개 이상 모으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했다(1등 일본여행(항공권과 숙박), 2등 일본항공권, 3등 호텔숙박권, 그 밖에 일본 술 세트, 일본 식품 세트 등).

행사 첫날인 8월 24일 ‘마루가메제면 강남 2호점’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 사사야마 다쿠야(佐々山拓也) 주한일본대사관 총무공사, 구마노 노부히코(熊野伸彦)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소장을 비롯해서, 이번 행사의 협찬기업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식으로 성공을 기원하는 ‘가가미비라키(鏡開き·술독 깨기 퍼포먼스)’ 등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일본에서는 이번처럼 여러 업체가 모여 행사를 개최하는 일이 드문데, 이러한 행사를 개



### 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일본계외식업체의 정보교환 모임에는 경쟁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일본음식을 전하고 싶고, 더 널리 알고자 하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이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곳 한국에 뭔가 돌려줄 방법은 없을까'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기획이다.

준비 단계에서는 점포마다 1인 사용금액이 각각이라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영업시간이 달라 홍보 방식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처음으로 기획된 이벤트라 검증을 위해 6월, 7월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메르스의 영향으로 실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 이벤트에 참여한 분들의 반응은.

일본 푸드 페스티벌 전용 홈페이지 접속이 6683명, 스탬프 어플리케이션 등록자가 약 600명, 행사 당일 오후 6시까지 대상 점포의 3곳을 방문해서 스탬프를 모은 사람이 4~5팀이나 되었다는 것은, 이번 이벤트에 흥미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만큼 있었다는 것이지요. 일본에서는 이러한 이벤트 참여는 여성 비율이 높는데, 한국에서는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은 놀라운 결과다. 다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데 거부감이 있어, 우리가 예상했던 참여 인원에는 이르지 못했다.

### 일본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한 강남을 비롯해서, 최근 일본 각 지역의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인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은 가깝기도 하고, 일본요리는 다른 나라 요리보다 친밀하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일본요리가 한국화되면서 지금까지는 진정한 일본요리를 제공하는 곳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 F1 층은 일본유학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아 그 맛을 잘 알고 있어, 지금처럼 한국화된 요리가 아니라 본토의 일본요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본다.

### 앞으로의 계획은.

재팬 푸드 페스티벌을 다른 지역에서 개최할지 미정이지만, 앞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계 음식점뿐 아니라 서비스관련 기업도 참여한 가운데 일본을 알리는 계기로써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 2015 한일фото콘테스트 결과발표

## 한국관광공사상



EGAMI ICHIRO, 남산공원의 가을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HONDA TOMOMI, 마음이 평온해지는 가을들  
전라북도 전주시



NAITO YUKAKO, 자연 속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 Canon상



JEONG JAEYONG, 5월의 호센인 액자정원  
교토시 오히라 호센인



HWANG INSUN, 어느 오후의 후지산  
시즈오카현 미호반도



SONG BONGGIL  
부녀의 행복한 시간  
신주쿠 오모이테요코조

## EPSON상



PARK SUNGCHUL, 교토의 저녁  
교토



YU HOJONG, 교사이묘지의 가을  
교토시 사이묘지



SHIMADA KAZUHIRO, 광안리에 핀 불꽃  
부산광역시 광안리

## JAL상



AN YUJIN, 붉은 꽃이 피어난다  
교토시 후시미나리타이샤



JEONG BYEONGHYUN, 교토의 정월  
교토시 기온 시조도리

## SONY상



KIM HUJIN, 둘이서 함께  
시마네현 마쓰에시

## INTERPARK상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여 '2015 한일포토콘테스트'를 개최했다. 동 콘테스트는 한국 국적자는 '일본의 매력'을, 일본 국적자는 '한국의 매력'을 주제로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을 통해 응모하여 우수작품 응모자에게 양국 기업이 제공한 상품을 수여하고, 더불어 우수작품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전시하는 사업이다. 양국 국민이 사진을 통해 상대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문화교류 · 인적교류 촉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양국의 관광 진흥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콘테스트에는 사업 첫해인 작년의 2배가 넘는 약 1,150명으로부터 2,100여 점의 작품 응모가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수상작품은 12월 1일(화)부터 18일(금)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전시된다.

### 비코트립상



KIM YOUNGGI, 다카마쓰항의 아름다운 기억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다카마쓰항

### CLAIR상



PARK YONGJUN, 일본의 여름을 걷다  
오이타현 기쓰키시

### 특별상, 特別賞



KIM SHINYOUNG, 마쓰리의 밤  
니가타현 나가오카



KIM YONGDAE, 후지산 불꽃  
아마나시현 아마나카호



OH KWEONYEOL, 신주쿠의 스카이라인  
도쿄도 신주쿠



CHOI KYUNGSOON, 비에이의 겨울  
홋카이도 비에이정

### 주한일본대사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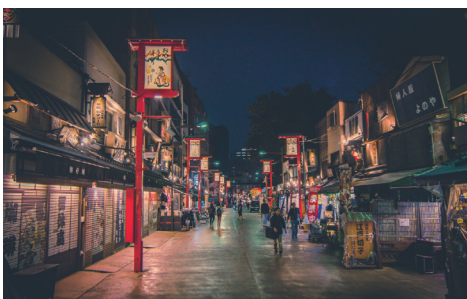
KANG SUNGSIL, 겨울 지나 봄  
나가사키현 쓰시마



KANG HYUNJU, 프레임  
교토시 긴카쿠지(銀閣寺)



KIM MYEONGHYEOK, 미래와 과거, 서로에게 손 내밀다  
도쿄도 미나토쿠 조조지



SHIM JAEWON, 오후 5시, 아사쿠사  
도쿄도 아사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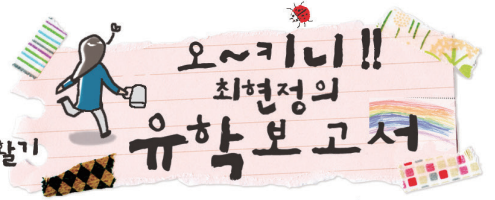
RYU TACKSANG, 봄을 달리는 시간의 기차  
시마네현 가노아시군 쓰와노



JEONG HYUNUK, 하코다테 야경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활기



문화 생활이라고 감히 상상도 못할 감성 메마른 유학시절 중에 호사를 누린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다카라즈카 가극단 공연 관람!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에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가극단 '다카라즈카 가극단(宝塚歌劇団)'.



1914년 4월 첫 공연 이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아 온 다카라즈카 가극단. 작년 봄에 무려 100주년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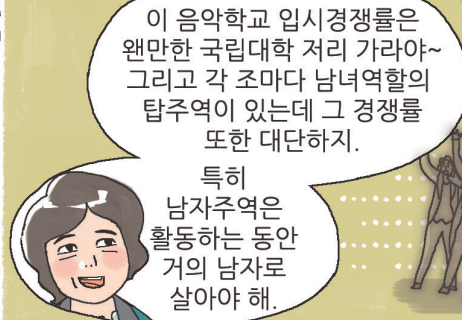
다카라즈카 소녀가극단으로 시작해서 1918년에는 다카라즈카 가극학교를 발족시키고 학생들을 양성시키기 시작했는데 노래에서 춤까지, 그 입시가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



하나구미(花組), 쓰키구미(月組), 유키구미(雪組), 호시구미(星組), 소라구미(宙組), 전과(연령의 제한으로 각 조의 주역에서 물러난 배우들의 조직체)의 6개의 조가 있고 간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과를 제외한 5개의 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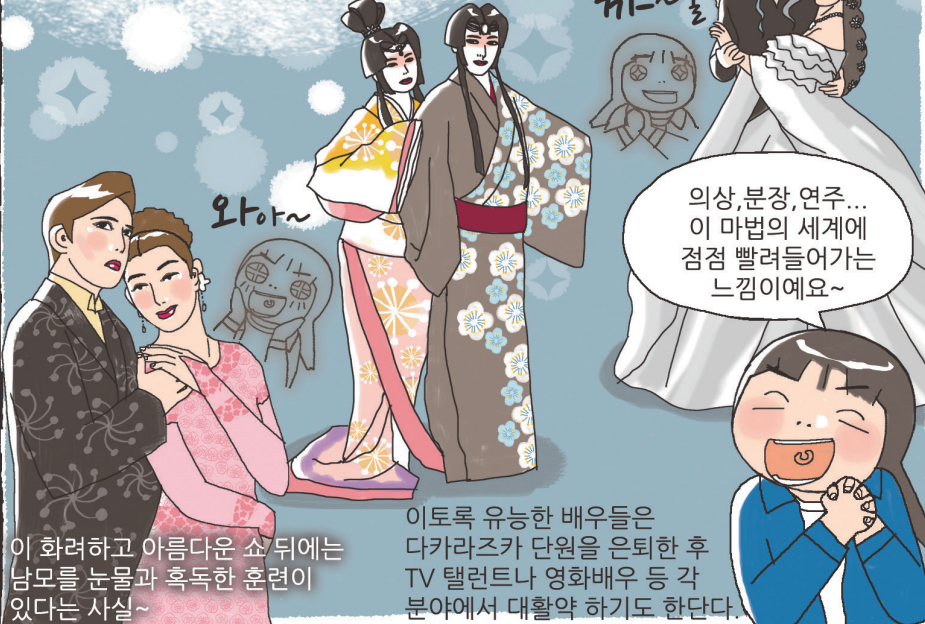


다카라즈카 가극단은 원래 한큐 전철(阪急電鉄)회사가 다카라즈카 유원지 안에 있는 온천의 온천객들을 끌기 위해 만든 것이 그 유래야.



\*오페라 망원경은 필수입니다~

공연장르 또한 순정만화 스타일의 뮤지컬에서부터 전통공연 그리고 화려한 쇼를 넘나드는데 대표적 작품으로는 만화를 극화로 한 '베르사이유의 장미', 영원한 고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엘리자베스' 등이 있다. 정기적 공연이 100년동안 이어져 온 것은 골수팬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쇼 뒤에는 남모를 눈물과 혹독한 훈련이 있다는 사실~

이토록 유능한 배우들은 다카라즈카 단원을 은퇴한 후 TV 탤런트나 영화배우 등 각 분야에서 대활약 하기도 한단다.

아주머니 덕분에 각조의 공연을 한번씩은 다 보았다.



그런데 아주머니와 다카라즈카 공연에 갔었을 때 그곳 스태프들이 인사를 한 적이 있었다.

